

2018년 VRound(VR 영상콘텐츠 공모대전) 수상작 발표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획안이 좋았던 작품이 완성도가 뛰어나고 몰입감이 높았다. 결국 애초에 VR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제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시네마 부문은 완성도의 편차가 가장 심했다. 아직 VR 연출 문법의 단계는 걸음마에 불과하다. 그러나 몇몇 작품은 신선한 시도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큐의 경우 공간적 몰입감과 체험성이 선정의 기준이 되었고 애니메이션은 VR의 장점이 가장 잘 보여졌다. 짧은 시간과 부족한 경험에도 작품을 완성한 모든 팀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